

쇼트트랙 금메달 고기현, 은메달 최은경

모정불심으로 오륜패거

14일(한국시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각각 금·은메달을 차지한 고기현(16, 목동중)과 최은경(18, 세화여고)의 패거뒤에는 모정 불심이 한 몫 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고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미수 보살(43)은 이번 시합이 열리기 한 달 전부터 양양 낙산사, 순천 송광사 등 전국 10여 사찰을 참배하며 딸이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을 간절히 서원했다. 특히 경기가 열린 당일에도 어머니 김 보살은 강원도 낙산사 흥련암을 찾아 딸의 선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번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서울 목동집 한켠에 촛불과 정화수를 차려 놓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씨는 또 절에서 받아온 A4 용지 크기의 '발원문'을 벽에 붙여놓고 불경테이프를 고기현 선수의 방에

하루종일 틀어놓는 등 기도에도 온 정성을 기울였다.

어머니 김미수 보살은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절에 다닌 영향인지 기현이도 항상 단주를 손에 끼고 다니며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말했다. 또 김보살은 "어려운 고비가 닥쳐도 온가족이 마음을 모아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메달에 집착하기 보다는 최선을 다할 것을 기현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고기현 선수의 가족은 모두 법명이 있을 정도로 문풍한 불자다. 대우증권 장안영 지점장인 아버지가 고정식(42씨)는 '지승', 어머니 김미수씨는 '문수심', 고기현 선수는 '보리심'이다. 이 법명들은 15년 이상 다닌 인천 용화선원의 송담 스님이 87년에 지어 주었다. 용화선원외에도 고기현 선수의 연습이 없는날엔

가족 모두 서울 평창동 원각사도 자주 들러 법회를 보고 기도도 한다.

은메달을 목에 건 최은경 선수의 어머니 박수현(43) 보살도 딸의 선전을 기원하는 간절한 서원을 가슴에 새긴채 아침마다 집근처인 남양주 봉선사에서 새벽 불공을 올린다. 또 박 보살은 초하루와 지장재일 등에는 자양동 불심장사에 나가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자동차에도 항상 <금강경>과 <천수경> 등 경전 독송 테이프를 틀고 다닐 정도로 불심이 돈독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최 선수도 시합때면 항상 손에 끼여진 단주를 만지며 평정심을 유지한다. 또 최 선수는 국내의 각종 경기와 연습이 모두 끝나는 5월이면 영주 부석사와 대구 삼보사 등으로 사찰 순례를 떠나 심신의 피로를 녹인다고 어머니는 귀띔한다.

어머니 박수현 보살은 "올림픽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해준 은경이가 자랑스럽다"며 "아직도 시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은경이의 선전을 위해 계속 사찰에 나가 부처님께 기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엔 패거를 이룬 고기현과 최은경 선수가 불자라는 것이 알려지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고기현 선수의 목동집과 최은경 선수의 남양주 집에 각각 축하난을 보내 격려했다.

10여 사찰 순례 딸 선전 기원 정대스님 축하난 보내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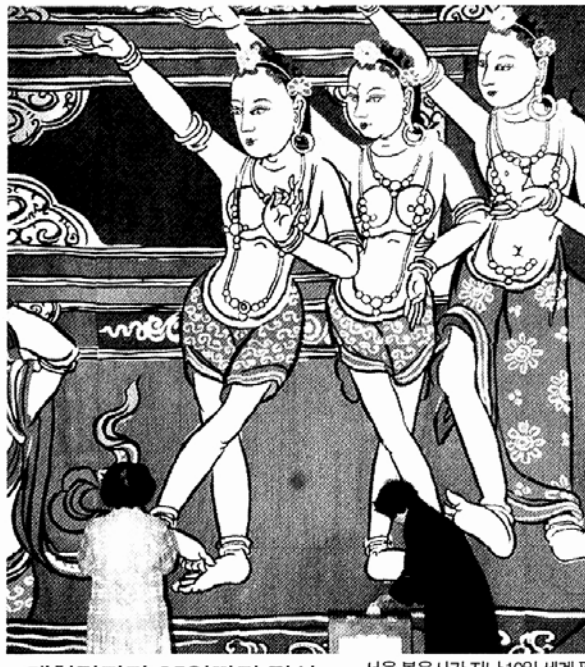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각각 금, 은메달을 차지한 고기현(오른쪽)과 최은경이 14일 시상식에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꽃다발을 흔들며 답례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hapa.com



금메달리스트 고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미수 보살이 평소 다니는 서울 평창동 원각사 미륵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대형만다라 25일까지 전시 서울 봉은사가 지난 10일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를 상징하는 세로 7m에 가로 5m 크기의 대형 만다라(팔상성도 중 일부)를 경내 법당무 사천왕 전시장 외부에 설치, 25일까지 전시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국립공원 15대 개혁의제 정부등 300여단체에 전달

17개 종교환경단체 선정

17개 종교 환경단체가 2002년 실천 15대 의제를 선정, 국립공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스님은 4일 100대 개혁의제 중 5대 핵심의제, 2002년 실천 15대 의제를 선정하여 국회 환경위원회, 환경부, 민주당 등 300여 정부기관 정당 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제도개선시민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의제는 △국립공원 관리 적정예산 산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검토 △신규 국립공원 추가 지정 △국립공원 전문 관리기구 설치 △지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법 제정 등이다.

또 2002년 실천의제는 △야생동식물 채취 및 포획 금지 △역사문화유

산 조사 △시설 설치 시 경관 미관 심의제도 도입 △불빛 소음 등의 제한 △생태 문화탐방 지속적 지원 △공원 관리청에 사법권 부여 △국립공원의 원형 민간위원 참여 △공단 임원진의 친환경인사 선임 △임장료제도 개선 △문화재관리로 징수 방식 및 영역 재정립 △거주 주민의 친환경적 생활 지원 △의제 실천 논의기구 구성 등이다.

김원우 기자

지방문화재 20건 보호

울산시가 동측사 3층 석탑 등 20건의 지정문화재에 대해 시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5필지 16만1845㎡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14일 고시했다. 시유형문화재 11호인 동측사 3층 석탑은 6필지 1천909㎡가 지정됐다. 여수령 기자

첫 비구니수계 싸고 논란

태국 성직자법, 여성에 정식자격부여 인정안해

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수계를 금지했고 1992년 제정된 불교성직자 법에도 여성이 정식으로 승려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는 불교 최고기구인 상가위원회가 1928년 여성의 비구니계

수계를 금지했고 1992년 제정된 불교성직자 법에도 여성이 정식으로 승려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태국의 사미니적인 '매치'를 9년간 봉직해온 와랑카나 와나위차란

56 스님은 지난 10일 방콕 근교의 사찰 송타마칸야나에서 스리랑카,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온 비구니 8명과 태국 비구 6명, 티베트 비구 2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구니계를 받았다.

현재 한국, 스리랑카, 대만, 중국, 홍콩 등에서는 비구니 계맥이 있지만, 태국 여성으로 태국에서 비구니계를 받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에서는 현재 외국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스님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2월 태국 타마사 대학의 불교철학 교수출신인 찻수만 카빌상(42)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받고 돌아오면서 논란이 야기됐다.

현재 태국 사찰에서 일종의 사미니적인 매치로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도 1만명에 이른다.

태국 교육부는 비구니계 수계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스님들로부터 계를 받았기 때문에 태국 승단에 소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경 기자

“개신교 배타성 탈피해야 종교 화합 이룰수 있어”

김경재 크리스찬 아카데미원장 주장



개신교의 배타성을 자기 성찰 차원에서 지적하고 이를 통해 종교화합을 모색하는 연구 논문이 개신교 신학자에 의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경재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한신대 신학과 교수)은 최근 발간된 <신학연구> 제42호에 발표한 논문 '종교간의 갈등 현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종교적 갈등은 극도의 배타성을 지닌 개신교 신자들이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자주 일어난 쉐불, 사찰 방화

사건을 예로 들어 "개신교 목회자와 신도들의 태도 변화가 종교화합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개신교의 자기 성찰을 촉구했다.

1990년 현대사회연구소가 조사한 '우리 나라 종교지도자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다른 종교는 철저히 배격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개신교 목사가 응답자의 30.5%로 나타나 스님(3.0%)에 비해 10배가 넘었다.

개신교가 강한 배타성을 띄게 된 이유로 김 교수는 197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회 성장론'이 종교간 대화나 협력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권형진 기자

불자의 생각

불교식 차례상

붓다뉴스가 명절 차례상을 주제로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00명 가운데 89명(89%)이 지난 설에 유교식 차례상을 차렸다고 답했다. 그간의 습관 때문이라는 답이 지

풍습때문 머뭇...82%가 “차리고 싶다”

배적이었다(64명 64%). 방법을 몰라서 유교식으로 차릴 수밖에 없다고 답한 사람이 12명(12%)이어서 불교식 차례상 차리기를 홍보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된다. 또 불교식 차례상을 차리는데 가족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고백도 14%(14명)나 됐다.

향후 불교식 차례상을 차릴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82%(82%)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무기권이냐 사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식 차례상 차리기를 권장하여 불자로 사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임연태 기자

활인(活人) 천역(天役者)자 롱

「육임래정비법 혁신판」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면역의 양심을 걸고 역학사(易學史)에 한 획을 긋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행을 모르는 분을 위해 소행에 능통한 분을 위해 1간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다시 썼습니다. - 효 사 -

세대(世態)는 구제적이고 즉시적인 영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육임 신단(神斷)은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시간만 보아 미리 그 사람의 사정과 특별한 비밀과 일의 결과를 물기전에 내가 먼저 말해 주는 책이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날치 한 장에 매시마다 적혀 있어 거기에 쓰여진대로 보고 말씀만 하면, 그 사람의 자제와 안색이 달라지게 되어있는 책입니다. 육임은 신통(神通)한 학문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접근이 어려워 덮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것을 쉽고 빠르게 활인천역자용으로 밝혀해 놓은 것입니다. 이틀테면, 낮 사(巳)시 (9:32 - 11:32 : 서울지역기준)에 사람이 왔거나 전화했거나 가서 만났을 때, 이 사(巳)시 간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하면 다 맞게 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말할 수 있고 또 적중하는 것입니다.

1. 문제판단 :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순조로운지 역경스러운지를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2. 수법기부 : 천도 시식 곳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즉 굿을 해야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표 또는 -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래방목적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물으려 왔는지 정확히 있습니다.
4. 정황판단 :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5. 초사(初辭) : 문에 들어서자마자, 전화 오자마자, 가서 만나자마자 때때로 내뿜는 말이 적혀 있으며, 동시에 어떤 귀신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쓰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6. 모양기부 : 무엇을 묻든, 그 묻는 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즉시 보고 말해줄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7. 이해특질 :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를 즉시 판단 하여 말해 줄 수 있게끔 써 놨습니다.
8. 선의구별 : 상대가 선한지, 악한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9. 이타발동(他發動)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고민사가, 자기 스스로 일으킨 일인지, 아니면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가 써져 있습니다.
10. 원근사 여부 : 묻는 용언이 오래된 일인지, 근래에 일어난 일인지, 자주 반복되는 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미기사(未既事)여부 : 그 일이 이미 일어났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가 써져 있어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일의 과정 : 찾아오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의 일이 시작-중간-결과로 나뉘어져 좋고 나쁜 것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표시대로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3. 귀신침범여부 :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 시간동안 보면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이 침범하여 방동하고 있는지를 즉시 말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간에 다 써 놨고 그 귀신을 제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록에 자세히 밝혀 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을 밝히면 반드시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전사귀가 발동했네", 라고 들어서서 사람에게 즉시 먼저 말하면 그 집안에 전령타가 나가 온명한 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받게 됩니다. 이것은 육임에서만 말할 수 있는 비법으로 천도나 시식, 또는 굿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게 활용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14. 산소탈 여부 : 지금, 누구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탈 부리고 있는 산소를 써놨습니다. 성년월일시를 들어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서서 순간, 전화 받자마자, 찾아가서 마주치자마자 먼저 내뿜을 수 있도록 써 놨습니다. 이 산소탈에 대한 제압법도 부록에 밝혀 놨습니다. 이를테면 조부, 조모, 부친, 모친, 형제자매, 숙부, 외조부, 외조모 장인, 남편, 아내, 누이대 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15. 사승여부 : 빚이부정 역시 온 사람이나 전화한 사람의 떠난 알면, 상대가 현재 무슨 부정이 들었는지, 빚이부정은 떠돌을 모두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단번에 기선을 제압당해 버립니다.
16. 가삼길흉(家相吉凶)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흉상인지, 길상인지, 이사를 하면 좋을 것인지, 빨리 그 집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여부가 써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부록 해당 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주치는 그 순간 먼저 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7. 이사길흉 : 이사를 하려할 때, 어디로 이사를, 어느 날에 시키면, 언제 어느 해, 또는 어느 월에 가서 좋은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아예 써 놨습니다.
18. 소송승패 : 국가와 개인간의 소송, 집안 상속 수하간의 소송, 타인간의 원고·피고의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를 분명히 표시해 놨습니다.
19. 용기판단 : 묻는 일이 어느 월에 될지, 어느 날에 될지를 정확히 써놨습니다. 또 부록에 그 근거를 밝혀 놓았으므로 이를 보시면 참으로 승부룰 낼 수 있습니다.
20. 가해(加害) : 어디 방위에 사는 남·녀 누가 피해를 가해 온 사람인지를 밝혀 놨습니다.
21. 길흉성부(길흉성부) : 뒷면에, 묻는 용언을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묻는 내용 22가지별로 그 답을 써놨습니다. 모양·공명·구제·구직·시형·혼사·임신·가정·이사·소송·질병·매매·출생·도난·심인·대인·상면·채용·무자·승부·가계·결락·묘지·기후
22. 연명상신법 : 뒷면에, 그 사람 떠난 알면 그 사람의 운세를 말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귀인인지, 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빈한자사인지, 병들 사람인지, 관재가 있을 사람인지, 동등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날치 한 장 칸칸마다 시간별로 다 쓰여져 있으므로, 비인더로 된 책에서 그날치 한 장만 해서 책상위에 놓고 하루 동안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이 오든, 전화가 오든, 가서 만나든 몇 시로 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봐도 모두 다르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다 적혀 있습니다.

● 전 13권 · 바인더구멍 · 크기 : 540×380×30 · 지질 : 스노우무광 ● 주문전화 : (02) 993-8680
● 입 금 지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도서출판 북문 ● 각종 카드도 갖기 분할 구입도 가능합니다.

매월별 12권 분권 부록 · 비디오에프 포함
W 1,300,000원 (일백삼십만원)